

# '요양시설 집단감염' 광주·전남 7551명

### 8월 30일 기준...광주 3649명·전남 3902명 누적확진자...68만7241명·77만3776명

광주와 전남지역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에 집단감염돼 일일 확진자가 7551명을 기록했다.

8월 31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광주 3649명(해외 26명), 전남 3902명(해외 16명) 등 총 7551명이다.

이들은 증상 정도에 따라 격리병상·재택치료 조치됐다.

8월 30일 기준 확진자 7551명은 지난 29일 7476명(광주 2953명·전남 4523명)보다 75명 증가했다.

또 이달들어 연일 6000명~7000명 대 감염이 지속되면서 지난 2020년 2

월 첫 확진자 발생이후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광주 68만7241명, 전남 77만3776명 등 총 146만1017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광주 3명·전남 6명이 추가돼 각각 619명, 613명이다.

광주에서는 동구와 광산구 지역 요양병원에서 141명이 집단감염됐다. 위중증 환자는 11명이며 격리병상 입원 22명, 재택치료 3546명이다.

전남에서는 요양시설 78개소 203명

감염 포함, 60대 이상이 1321명으로 전체 확진자 3902명의 33.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순천 724명, 여수 538명, 목포 536명, 광양 276명, 나주 242명, 영광 169명, 무안 161명, 화순 152명, 고흥 130명, 해남 118명, 곡성 111명, 영암 105명, 보성 86명, 담양 82명, 완도 81명, 장성 70명, 함평 66명, 장흥 62명, 강진 58명, 구례 51명, 진도 49명, 신안 35명이다.

김재환 기자



### 담양소방, 관내 대형축사 화재예방에 힘써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관내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담양=박종영 기자



### 진도소방, 3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지난달 30일 ~ 31일 오전 진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위험물 이동탱크 및 운반차량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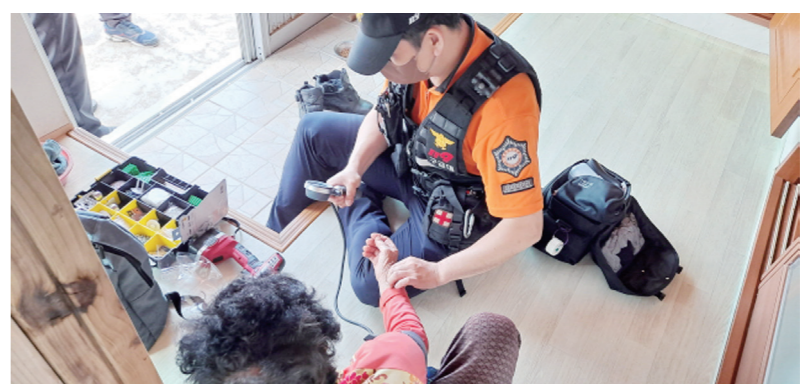
진도=조상용 기자



### 무안소방, 영·호남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협약

무안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회장 성동호, 김경애)는 8월 29일 무안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밀양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 협약식 행사를 가졌다.

무안=이기성 기자



###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추석 맞이 예방활동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재난취약계층 안전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나주경찰, 학교전담경찰관 찾아가는 '도란도란 상담소' 운영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2학기 개학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찾아가는 '도란도란 상담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 광양경찰,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위한 등굣길 순찰활동 강화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2학기 개학과 더불어 학교 주변 등굣길 위험 요소를 살피는 등 세심한 점검 활동을 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SNS서 청소년 대상 술·담배 대리구매 성행...“수수료만 내”

### SNS서 담배 대리구매 성행... 수수료·택배비만 내면 구매 가능

대리구매 목록	대리구매 해드려요
<input type="radio"/> 연초 (+1000) <input type="radio"/> 라이터 (+500) <input type="radio"/> 비타아인(터렛배수) (+1000)	지역 (이 쪽 아닌 곳은 교통비 받아요 교통비 해봤자 1000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당가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정주 여성 (거래시 인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초는 아래 목록에서만 제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배수는 반값택배로만 진행됩니다 (+1600)	연초 한갑 4500+2000 수고비 2천원입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래양식 구매물건 / 맛 / 수량 / 이름 / 연락처 /	직거래구요 자제해 건 디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물건 이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질 구매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구매'가 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8월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제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022~2024)'에 따라 여성가족부, 경찰청·보건복지부가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술·담배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

이에 따라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의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구매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단속 등 술·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술·담배 온라인 구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NS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명 '델구'(대리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8월 31일 한 SNS에 '담배 델구'(대리구매)를 검색하자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해준다는 글이 우후죽순 있었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 전자담배, 술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수수료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500원부터 2000원까지 다양했으며 구하기 어려운 술·담배는 수수료가 추가되기도 했다.

지역과 상관없이 수수료와 택배비만 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해 담배를 보내준다는 글도 눈에 띄었다.

"담배를 안전하게 받았다"며 후기와 함께 담배 사진을 남기는 청소년들도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쏟아지는 대리구매 글중에서도 '여성만 구한다', '담배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여성분 있냐', '담배 델구 속옷으로만 교환가능하다'는 글이 적지 않아 청소년 성범죄 등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김모(16)군은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SNS에 대리구매를 검색하는 친구를 보긴 했다"며 "불법적인 일인데 계속해서 상행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학부모 이모(48·여)씨는 "SNS상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담배, 술, 전자담배를 넘어 마약류까지 대신 구매해준다는 글도 봤다"고 걱정했다.

이어 "모든 불법 행위를 완벽하게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성인들의 올바른 인식과 정부·단체, 기업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팔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어른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며 "대리구매라는 것이 법이 있어도 결국 빠져나가는 구멍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고 전했다.

정부, 기업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리구매가 이뤄지는 플랫폼 회사들이 다 해외 기업이어서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은 거의 다 개발돼 있다. 국민, 기업,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 자세를 취하기보다 문제 제기,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선욱 기자



### '교실 복도에서 시험공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8월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복도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 논일 하다 뱀 물린 60대...이웃 응급처치로 생명구해

### 독 퍼지지 않도록 치

영암의 한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뱀에 물렸지만 이웃 주민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다.

8월 3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38분께 영암군 학산면 한 마을에서 60대 여성 A씨가 독사로 추정되는 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

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뱀에 물린 A씨는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 이웃 주민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A씨가 발등을 물려 부어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독이 퍼지지 않도록 발목 부근을 주변에 있던 밧줄을 이용해 강하게 묶었다.

또 A씨를 안정시키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119에 곧바로

로 신고했다.

A씨는 이날 논에서 일을 하던 중 뱀에 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19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웃주민들이 응급처치를 마친 상태여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며 "뱀에 물렸을 때는 독을 빨아내지 말고 독이 몸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강하게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 광주 시민·소방대원 오토바이에 친 보행자 심폐소생술로 살려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보행자 교통사고로 2명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보행자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지만 지나가던 시민과 인근에서 식사 중이던 소방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월 31일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오후 9시 24분께 광산구 하남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A(62)씨가 B(48)씨의 오토바이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발생하자 지나가던 시민과 인근에서 식사 중이던 소방대원의 응급처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 A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다. 또 사고 장소 인근에서 식사를 하던 소방대원도 사고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시민이 시행하고 있던 심폐소생술을 이어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소방대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119종합상황실과 통화하며 의뢰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으며 현장에 도착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취재본부

광양=기동취재본부